

무더위를 씻어준 단비 같은 생활성가 공연

베이사이드 한인 천주교회, 한국 문화공동체 F.I.A.T(피아트) 찬양콘서트 가져



베이사이드 한인 천주교회에서 공연을 펼친 한국 문화공동체 F.I.A.T(피아트)와 한덕훈 스테파노 신부.

【뉴욕】 베이사이드 한인 천주교회(이가별 가브리엘 신부)는 미라클이란 주제로 한국 문화 공동체 F.I.A.T(피아트)를 초청해 지난 1일 찬양 콘서트를 열었다. 이번 콘서트는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신부(베이사이드 성당 보좌)가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우리 삶 속의 기적을 발견하고 감사드리자는 뜻으로 무료 콘서트를 기획해 신자들이 아무 부담없이 은혜롭게 찬양시간을 즐길 수 있게 했다.

문화공동체 F.I.A.T는 6월 23일부터 뉴저지 메이플우드 성당, 마이클 성당, 마돈나 성당에서 공연을 펼쳤고, 마지막 공연인 뉴욕 베이사이드 성당에는 300여 명의 신자와 주빈이 함께했

다.

F.I.A.T는 ‘이루어지소서’란 뜻으로, 한덕훈 스테파노 신부(인천교구)와 가톨릭 문화선교를 충실히(Fidelity) 실천해 나가는 예술인(Artist)들의 공동체(Team)다. 특히 가톨릭평화방송 평화신문이 주최하는 창작생활성가제에서 2012년 인기상을 받은 아론밴드, 2017년 우수상을 받은 ‘씨앗’ 여성 듀엣,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그대에게 평화’ 진행자인 김용주 스테파노가 멤버로 활약하고 있다. 한덕훈 신부는 엘피스, 힘을 내라 등의 음반을 발표한 생활성가 가수 신부로 4년 전 시카고를 방문해 미주 공연을 펼친 바 있다.

이번 미라클 공연에서 익숙한 성가를 빠르고 경쾌하게 편곡해 다같이 손뼉치며 흥겹게 하느님을 찬양했고, 중간중간 한 신부가 자신의 경험과 목상을 재미있고 소탈하게 이야기하며 노래를 들려주어 마치 피정 같은 콘서트로 이끌었다. 또한 F.I.A.T 찬양팀은 일상생활에서 우리 신자들이 느끼는 감정을 가사로 표현해 관중들이 공감하며 편안하게 음악에 빠질 수 있게 했고, 젊은이답게 발라드, 랩 등의 가요를 불러 공연장을 뜨겁게 했다.

이어 황필구 신부가 “내가 사제가 될 수 있었던 계기가 찬양이었고, 어릴 때부터 함께 노래 부르며 신앙을 키웠던 성당 친구, 군대 동기가 있는 F.I.A.T의 공연을 보니 가슴 벅차다”며 지나간 시간의 아쉬움과 다가올 설렘을 하느님과 함께하자는 ‘늘 그렇게’를 불러, 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F.I.A.T와 황 신부는 힘든 요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라며 ‘힘을 내라’라는 노래를 선물해 큰 박수를 받았다.

한덕훈 신부는 “찬양하는 기쁨, 함께하고자 하는 열망 눈빛을 볼 수 있어서 기뻐다. 많은 분이 위안을 얻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했고 박동현 라파엘 사목회장은 “생활성가 공연을 미주지역에서는 자주 볼 수 없는데 귀한 시간이었다. 음악을 들려주기 전에 작곡자들의 마음을 소소히 들려주어 감동이 두 배였다.”며 감사사를 전했다.

김혜성 기자

현츠빌 한인 공동체 첫 여성피정 개최

신심강화와 묵상 실천 통해 변화되는 자신 발견



현츠빌 한인 공동체가 처음으로 개최한 여성피정에서 참가자들이 피정장소인 성 베네딕도 수녀원 피정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엘라배마】 현츠빌 한인 공동체(주임 박동규 베드로 신부)는 공동체 신앙 성장의 거름이 되고

자 처음으로 여성피정을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1박 2일 동안 22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 베네딕

틴 수녀원 피정센터에서 열었다.

이번 첫 여성피정은 지난해 박동규 신부 부임 이래 사목회 임원피정, 남성피정에 이어 3번째로 개최하는 피정이며, 본당 공동체의 전신자를 대상으로 신심강화 및 묵상실천을 통한 하느님의 뜻을 알고, 실천해 나가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일정은 ‘하느님과 인간의 만남’이란 주제로 박 신부가 창조의 본래 의미인 분리를 통한 거룩함의 재발견, 인간의 법과 하느님의 법의 다름에 대한 모색과 우리가 따라야 할 길, 신앙인의 모범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정이란 머무름이지만 결국 삶의 자리로 돌아감이라는 여정으로 강의했다.

또한 하느님 안에서의 신앙 재발견과 변화라는 주제를 강의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체 안에 머물 수 있는 호칭기도 및 성체현시, 떼제 찬송의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영적 돌봄의 시간을 가졌다.

기사/사진 제공· 허삼준 길베르도

예수님 닮은 신앙생활 해 나가자

곽중현 프란치스코 신부, 키치너 성 정하상 바오로 성당 부임



곽중현 신부가 캐나다 온타리오 키치너 성 정하상 바오로 한인성당에서 부임미사를 봉헌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온타리오】 곽중현 프란치스코 신부(수원교구)가 6월 24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키치너 성 정하상 바오로 한인성당에서 부임미사를 봉헌했다. 곽중현 신부는 2009년 8월 21일 서품을 받았고, 수원 원천동성당 보좌신부, 양평 용문성당 주임신부와 켈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어학연수를 거쳐 6월 27일자로 온타리오 키치너 성당 주임신부로 사목을 시작했다.

부임미사에서 곽 신부는 “새로운 임지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따뜻한 환영에 안도가 된다. 앞으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발맞춰 나가자”며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받지 않는 공동체, 함께 채워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키치너 성당 신자들은 꽃다발 증정과 “축하해요” 성가대 특송으로 곽 신부를 환영했다.

한편 전임 최종혁 마티아 신부는 한국으로 귀국해 수원교구 동백지구 성 마리아 성당 주임신부로 사목을 이어간다.

기사/사진 제공· 백 안셀모

올바른 가치와 관계 안에서의 성장

뉴욕·뉴저지 제3차 선택주말, 9월 1일-3일 뉴튼수도원에서

뉴욕·뉴저지 제 3 차 선택 주말이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뉴튼수도원에서 열린다.

청년 선택 주말은 젊은이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신앙 안에서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또한, 관계 안에서의 성장을 원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은총의 시간이 될 것이다.

올바른 가치를 선택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나설 많은 청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2018년 9월 1일(토) 오전 10시~ 9월 3일(월) 오후 3시

참가대상: 1980-1996 년생 청년 미혼 남녀(한국어,영어권)

장소: 뉴튼 수도원(St. Paul Abbey) Rt 206, Newton, NJ 07860

참가 신청: www.choicenynj.com

신청 마감일: 7월 31일

참가 문의: choicenynj@gmail.com

참가 신청비: \$240 (\$50 non-refundable deposit)

cpbc 미주가톨릭평화신문

The Catholic Peace Times Weekly, Inc.

145-27 33rd Avenue, Flushing, NY 11354

Home page: peacetimesweekly.org

E-mail: peacetimes93@hotmail.com

The Catholic Peace Times Weekly (USPS 10804) is published weekly(except Lunar New Year, Summer Vacation Week & Korean Thanksgiving) for \$130 per year by The Catholic Peace Times Weekly, Inc. Periodical postages paid at Flushing, NY.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The Catholic Peace Times Weekly, Inc. 145-27 33rd Ave., Flushing, NY 11354

구독료: 1개월 \$13.00 / 1년 미국 \$130.00 (USD)

Publisher: Rev. Gyou Deok Park

발행인: 박규덕 베드로 신부

Tel. (718) 762-6500, 5107

(800) 219-1137

Fax. (718) 762-5108

미주가톨릭평화신문(USPS 10804)은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톨릭 신문이며 독자의 구독료와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주가톨릭평화신문은 매주일 발간하는 주간지이며 설날, 여름휴가, 추석 3회를 휴간합니다.

캐나다 \$300.00 (CAD)

"너희는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마르 6,31) 피정은, 지친 영혼을 위한 휴식이자 힐링이며,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Jesus Sacred Heart Retreat Center

예수성심 피정집 건립을 도와주십시오.

2017년 4월에 피정집 부지를 매입한 이래, 많은 분들의 기도와 도움에 힘입어 예수성심 피정집 건립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자연을 벗삼아 하느님 안에서 쉬고 기도할 수 있는 피정집을 지어주십시오. 의자 하나, 벽돌 한 장 봉헌하는 마음을 기다립니다.

- 피정집 부지 위치: 9521 Kehl Canyon Rd., Cherry Valley, CA 92223 (LA 다운타운에서 동쪽으로 1시간 20분)
- 피정집 건축 계획: 성당, 피정동(1인실 50개, 2인실 30개), 성모 동산, 십자가의 길, 명상길, 캠프장 등

황창연 신부님의 평창 생애포함

천국장 가루

1kg 한봉지: \$50

고 조나단: 213-330-6808

*수익금은 예수성심 피정집 건립기금으로 쓰입니다.



예수성심 피정집
Jesus Sacred Heart Retreat Center

